건강 칼럼

성공을 부르는 리더의 조건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비즈니스, 직장생활에서 인정받고 인간관계에서 호감 얻고 싶은가? 토론, 연설, 사회 등을 더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변력(스피치력)을 길러야 하고 이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철저하게 두드려 없앨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기었다.

또한, 현대의 매력 있는 사람은 세련되고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말솜씨,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유머 리더쉽, 위트, 그리고 재치가 풍성해야 한다.

"좋은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빛나는 의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주변도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유머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모임에서 주의를 끄는 사람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유머나 긍정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이다.

전 미국대통령 레이건은 산소 같은 유머로 지지율이 83%까지 상승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유쾌하지 못하고 상대를 짜증나게, 상대를 멸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주위에 간혹 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초지만 상대의 가슴속에는 30년 동안 남는 말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간에 몇 마디 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말의 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잘한 적이 있냐?"

둘째, "당신이나 잘해"

셋째, "주제 파악이나 잘 해!"

넷째, "당신은 당신 말만 해, 나는 내 말할테니"

이런 유형의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 말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3분의 2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탈무드에서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향을 내는 긍정의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는데, 전 현대그룹의 정회장의 "시련이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는 철학과 같은 말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성공의 비율은 "말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진정성과 긍정의 말을 화려하게 말하는 스피치기법을 습득해야 한다.

표현력을 기르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능력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전설적인 경영인 아이어코카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표현력의 기술 덕분이었다' 고 회고했고 인간관계 전문가 제임스 F 벤더 박사는 미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더의 제1조건은 '스피치' 라고 말하였다.

현대사회는 능력위주의 사회다. 성공을 위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 방심에서 벗어나 스피치기법을 터득하여 보자.

스피치는 소질이 아니라 학습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습을 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사 설

산업체질 개선 위한 모멘텀

전북도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산업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뜻있는 이들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래도록 터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다른 광역지자체를 따라잡기는 고사하고 뒤따라가기도 벅차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전북도가 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전북도는 힘찬 행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가 말한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은 그 공감대가 넓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만시지탄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고 해야 옳을 터이다. 그만큼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은 지역의 염원이고 숙원이었던 것이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산업 체질 개선 목소리에 호응하고 있는데 지금의 열기를 전북도는 꾸준히 상승시켜야 한다.

최근 들어서 도민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지엠 군산공상 폐쇄 이후 주식회사 명신이 매입해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명년인 2021년까지 2천5백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650여명의 생산 인력을 고용한다는데 그것은 듣던 중 매우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더욱 밝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5G시대를 이끌 홀로그램 기술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전북도의 말 그대로 주식회사 명신의 전기차 생산이며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의 경제 회복을 기대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모두 663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에 42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전북도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해졌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모멘텀 그대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 할 성공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를 믿거니와 전북도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인구 감소 고민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겠다. 도내 어느 시군 할 것이 거주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지 못하면 더욱 가파른 인구 감소가 뻔하다. 정부가 군산을 위기 특별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라는 게 미미하다. 나랏돈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고용 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게 단지 군산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경남 쪽만 해도 5곳이나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 그리고 창원시의 진해구와 울산광역시의 동구가 바로 그렇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산에 지원된 금액은 그 피해애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발언이라도 도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전북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민들은 거듭된 경제 우환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숙제가 쌓여 있는데 전력투구하지 않는 것은 기대밖이다. 해결해야 할 일거리가 산더미라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전북도는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제몫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는 도내 작은 군들끼리 통폐합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참으로 난감하다. 지금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군산의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언론사들의 인구 동향 보도에 민감해야 한다. 올해 1/4분기만해도 수천 명의 인구가 유출됐는데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날마다 긴장 모드로 일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독자제언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해야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이륜차·농촌인력수송차량 등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농번기는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도 하다. 최근 5,6월에만 도내 농기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11명이나 사망하였다.

그 중 경운기 후미 추돌사고가 88.9%(8명)로 제일 많이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장치가 적어 사고 발생 시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번기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

▲첫째, 등화장치를 켜고 운행해야 한다. 안개가 끼거나 야간에는 농기계 차량이 멀리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 반사판 등 부착하여 나를 보호하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

▲둘째,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 동승자가 있을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레버조작 등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급정지·급회전을 할 경우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셋째, 일반 차량들도 속도를 줄여야 한다. 농촌 도로에서는 농기계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 커브길 주행 시 속도를 줄이고, 무리하게 농기계를 앞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원경찰에서는 농기계·이륜차 사용량이 많은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펼쳐 농기계 운행 시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음주운전 금지, 경운기 적재함 탑승 자제, 야광 반사지 부착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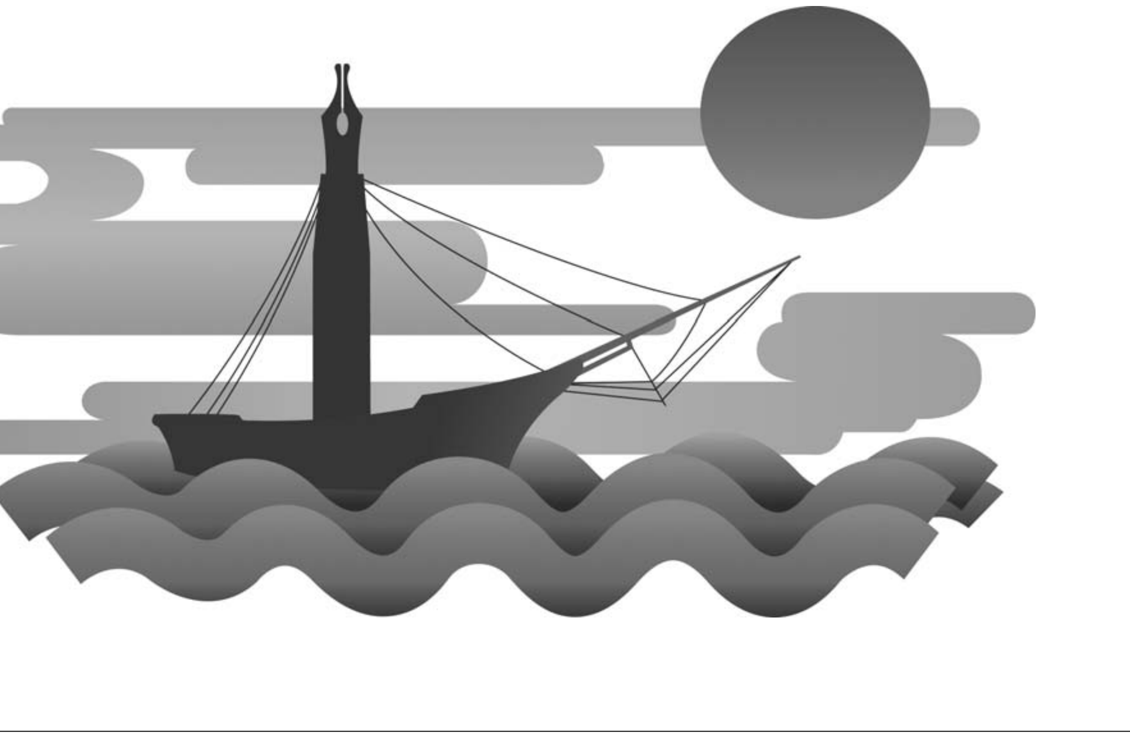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英 메이 총리, 마지막 EU 정상회의 참석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나는 아직도 우리(메이 내각과 EU)가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질서정연한 브렉시트를 당부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